

5월 8일(목요일)

오늘은 고하(古下) 선생 탄신 113주년이 되는 날이자 ‘부처님 오신날’이고 ‘어버이날’이기도 하다. 어제까지 수일 동안 봄비답지 않게 폭우와 같은 기세로 내리던 비가 어젯밤을 기해 멈추더니 오늘은 화창한 봄날씨로 변했다.

11시 30분부터 국립현충원 애국지사묘에서 개최된 고하 송진우 선생 추모 모임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게 300명 가까운 인사들이 모여 준비된 도시락이 모자라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김종성 국가보훈처차장을 비롯하여 이동욱·권오기 전 동아일보 사장, 김학준 현사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했다. 어제 미국에서 귀국했던 고하 선생의 장손 송상현 교수와 전화통화를 했을 때만 해도 휴일인데다가 일기가 고르지 않아 추모객들이 모이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도 했지만 이날 따라 지나치게 많은 추모객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어 당황하기도 했다. 고려대 총장을 지내고 한국의국어대학 재단이사장을 맡고 있는 홍일식 박사의 약력보고에 이어 나는 추모사를 읽었다.

추모사 벽두에서 나는 고하 선생은 참으로 위대하시다고 했다. 그렇게도 염려했던 날씨가 말끔히 가셨으니 말이다. 언제나와 같이 고하 선생의 업적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소개한 후 두 가지를 덧붙였다. 하나는 장손 송상현 교수가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된 일과 둘째로는 선생의 생가를 복원하는 일에 관해서였다.

송상현 교수는 지난 2월 4일 뉴욕 UN 본부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국제형사재판소 초대재판관으로 선출된 바 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범죄·비인도적범죄·집단살해범죄 등 중대한 국제법을 위반한 개인을 국제 사회의 이름으로 처벌하기 위하여 작년 7월 1일 설립된 상설 국제사법기관이다. 송 교수는 85개 당사국 중 63개국의 지지를 얻어 1차 투표에서 당선되었다. 18명의 재판관을 선출하는데 33차례 투표가 있었다고 하니 송교수가 1차에서 당선된 것은 획기적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서울대 법대에서의 강의와 더불어 미국을 비롯하여 여러나라에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 송교수는 더욱 바빠질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 본부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으니 말이다.

고하 선생은 1890년 5월 8일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곡리에서 탄생하셨는데 기념사업회가 생가를 복원하여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한 것이다. 이미 관계당국에도 그 뜻을 전한 바 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청소년은 물론이고 여러 방문객들에게 역사적 사료를 통하여 애국혼이 살아 있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정치학 명예교수이며 경희대학교 객원석좌교수인 이정식 박사가 ‘고하의 혜안’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맡아 주었는데 이 특강을 통해 나는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다. 1945년 12월 30일 선생이 폭도에게 암살 당하기 전전날 경교장에서 김 구 선생, 김규식 선생 등 민족 지도자들이 모여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인 신탁통치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모든 분들이 흥분하여 반탁을 외쳤다는 것이다. 아무말 없던 고하 선생이 끝머리에 가서 ‘지도자들이 감정적으로만 대처하려 해서는 곤란하다. 지도자들은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설파하셨다는 것이다. 누구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고하 선생은 당당하게 자기 소신을 개진하더라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당시 청년 참석자로 배석했던 강원룡 목사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소개하면서 고하 선생이야말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지도자이며 그야말로 앞을 내다볼 줄 아는 분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